

로마가 비전을 수립한다 - 두 번째

현대의 로마와 말세의 예언적 비전을 규명하기

Jeff Pippenger

2024-07-05

그 때에 많은 이들이 남쪽의 왕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요 또 네 백성의 약탈자들도 환상을 세우려고 스스로 높일 것이나 그들은 넘어지리라. 다니엘 11:14.

현대 로마로 표상되는 마지막 때의 세력을 올바르게 식별하는 것, 곧 '환상을 확립하는' 그 세력을 식별하는 일은 필수적이며 구원과 직결된다. 이는 십사만 사천 명의 최종 시험 과정의 한 요소를 나타낸다. 그 구절에서 '환상'이라는 단어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이 왜 멸망하는지를 밝힐 때 선택한 것과 같은 히브리어 단어다.

목시가 없으면 백성은 멸망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잠언 29:18.

모든 선지자들은 거룩한 역사의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말세에 관하여 더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으며, '목시'를 소유해야 한다는 솔로몬의 경고는 사활이 달린 문제이다. 진리는 언제나 사람들을 둘로 나누어 두 부류의 예배자를 만들어 낸다. 그 구절에는 멸망하는 부류와 기쁘게 율법을 지키는 부류가 있다. 그러나 솔로몬의 권면은 '진리'를 둘러싼 논쟁의 맥락 속에 놓여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이것은 열 처녀의 비유의 맥락에도 놓여 있는데, 열 처녀의 비유는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의 경험을 보여 주는 주된 예증이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을 다 털어놓지만, 지혜로운 자는 나중까지 자제한다. 통치자가 거짓에 귀를 기울이면 그의 모든 신하들은 악해진다. 가난한 자와 속이는 자가 함께 만나지만 여호와께서 둘의 눈을 밝히신다. 가난한 자를 성실히 재판하는 왕의 보좌는 영원히 굳게 선다. 매와 책망은 지혜를 주지만, 내버려둔 아이는 그의 어머니를 부끄럽게 한다. 악인이 늘어나면 범죄가 많아지나, 의인은 그들의 몰락을 보게 된다. 네 아들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게 평안을 주고, 참으로 네 영혼에 기쁨을 줄 것이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망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잠언 29:11-18.

현대 로마에 대해 나와 다른 이해를 가진 사람들을 탓하려는 것이 내 의도는 아니다. 내 의도는 솔로몬이 예배자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 그들을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로 지칭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는 또한 "악인"으로 지칭된다. 비유에 나오는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은 다니엘서 12장의 예언의 선상에서도 "지혜로운 자"와 "악인"으로 지칭된다.

많은 이들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며 연단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들은 악을 행할 것이고, 악인들 가운데는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깨달을 것이다. 다니엘 12:10.

솔로몬과 다니엘은 서로 뜻을 같이한다. 모든 예언적 증언이 마지막 때에 서로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자들은 "지식의 증가"를 깨닫는다.

지혜로운 자들은 창공의 광채처럼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의로움으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나 너, 다니엘아, 이 말들을 감추고 책을 봉하여 끝날 때까지 간직하라. 많은 이들이 이리저리 왕래할 것이며, 지식이 늘어나리라. 다니엘서 12:3, 4.

10절은 14만4천 명 중에 들도록 부름받은 처녀들을 체질하는 세 단계의 시험 과정을 밝힌다. 두 경우 모두, 체질과 시험의 과정은 1989년 끝의 때에 봉인이 풀린 지식의 증가(그 환상)를 처녀들이 이해하는지 여부에 근거한다.

말세의 "끝의 때"는 1989년이었는데, 그때 다니엘 11장 40절부터 45절이 봉인이 풀렸다. 그때 그 구절들의 주제가 북방 왕의 최후의 흥기와 몰락이라는 것이 확정되었다. 또한 그 구절들에서 말하는 북방 왕이 말세의 교황권이라는 것도 확정되었다. 영감의 기록은 "현대 로마"라는 표현을 결코 사용하지 않는다. 그 표현은 말세의 교황권을 나타내기 위해 내가 만들어낸 것이며, 예언적으로 "현대"가 말세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엘렌 화잇은 "현대 로마"라는 표현을 결코 사용하지 않았다.

다니엘 11장의 마지막 여섯 절에서 '북방의 왕'이 누구를 대표하는지에 관해 잘못된 견해들이 있지만, 올바른 이해는 단 하나뿐이다. 그 절들에서 말하는 북방의 왕이 교황권을 가리킨다는 이해는 많은 예언적 증거들로부터 도출되었다. 40절은 1798년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 교황권을 지목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이어 41절부터 43절은 그 치명적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의 전개 양상을 밝혀 준다. 44절은 교황권을 격분하게 만드는 메시지를 묘사하고, 45절에서는 교황권이 최종적이고 완전한 종말에 이르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1989년에 봉인이 풀린 그 이상은 말세에 있을 교황권의 최종적 흥기와 몰락에 관한 것이다. 그 이상은 지식의 증가로서, 그 절들에 담긴 지식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 두 부류의 예배자들을 형성하고 드러낸다.

1989년에 지식의 증가가 봉인 해제된 바로 그 장에 따르면, '너의 백성 중 포학한 자들'은 '스스로 높아지고' 결국 '넘어지는' 자들로서, '이상'을 확립하는 상징이다. 최종적인 분별에서 첫 번째 시험 질문은 누가 '너의 백성 중 포학한 자들'로 대표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그들이 '이상'을 확립하는 예언적 상징이기 때문이다. 그 '포학한 자들'은 교황권인가, 아니면 미국인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같은 책으로, 같은 예언의 줄기에 속한 두 증인을 나타낸다. 다니엘서는 시작이고 요한계시록은 끝이며, 둘은 함께 1989년 끝의 때에 봉함이 풀린 진리를 증언하는 두 증인을 대표한다.

다니엘은 1989년에 유다 지파의 사자가 40절부터 45절의 봉인을 풀었을 때 일어난 정결 과정에 대해 묘사한다. 그때 마지막 때의 14만 4천인 언약의 백성을 구성할 "제사장"이 누구인지 규명하고 드러내기 위한 시험 과정이 시작되었다. 호세아는 마지막 때의 지식의 증가를 거절하는 자들은 14만 4천을 이루는 제사장들 가운데 하나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내 백성은 지식이 없어 망한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네가 내게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겠다. 호세아 4:6.

요한계시록은 한 부류가 거부하는 봉인이 풀려 드러난 지식이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직전에 그들의 버림받음을 초래한다고 밝힌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한 자는 여전히 불의한 채로 두고, 더러운 자는 여전히 더러운 채로 두며, 의로운 자는 여전히 의로운 채로 두고, 거룩한 자는 여전히 거룩한 채로 두어라. 요한계시록 22:10, 11.

밀러파의 역사는 14만 4천인의 역사를 보여 주며, 밀러파와 14만 4천인은 함께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과 사역의 시작과 끝을 대표한다. 이 평행하는 역사들은 은혜의 시기의 종결과 관련된 사건들을 밝혀 준다. 두 역사에서의 사역은 엘리야와 세레 요한에 의해 예표되어 왔다.

떨리는 마음으로 윌리엄 밀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풀어 설명하기 시작했고, 예언들을 따라 그의 청중을 그리스도의 재림에 이르기까지 이끌어 갔다. 그는 노력할수록 힘이 붙었다. 세레 요한이 예수의 초림을 선포하고 그 오심의 길을 예비했듯이, 윌리엄 밀러와 그와 동참한 이들도 하나님의 아들의 재림을 선포하였다. 초기 저술, 229, 230.

밀러파의 메시지는 엘리야와 세레 요한 모두가 보여 준 바와 같이, 은혜의 기간이 끝날 때와 관련된 '사건들'을 밝혔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위험을 깨닫도록 일깨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였고, 은혜의 기간의 끝과 관련된 엄숙한 사건들을 준비하도록 각성되는 것이 필요하였다." 『각 시대의 대쟁투』, 310.

1989년에 소련의 붕괴와 함께, 말세와 관련된 다니엘서의 부분이 봉인이 풀렸고 시험 과정이 시작되었다. 그 시험은 다니엘서 11장의 마지막 여섯 절에 나타난 지식의 증가를 하나님의 백성이 이해하거나 거부하는 능력 또는 무능력에 근거했다. 그 절들은 12장 1절로 이어지며, 그 1절은 "은혜의 기간의 종료"를 가리킨다. 이어서 "은혜의 기간의 종료와 관련된 사건들"의 메시지가 봉인이 풀렸고, 14만 4천의 "제사장들"이 될 후보자들의 사역이 시작되었다. 그들의 사역은 그 본문에 나타난 메시지를 "이해"하고 선포하는 것이었다. 14만 4천의 메시지와 사역은, 사람들을 일깨워 "은혜의 기간의 종료와 관련된 엄숙한 사건들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 봉인이 풀린 그 메시지를 제시하는 것이었다.

오늘날 엘리야와 세레 요한의 영과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자들이, 은혜의 시기의 마지막 때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과 관련하여 머지않아 일어날 엄숙한 사건들에 주의를 돌리도록, 심판을 앞둔 세상에 호소하고 있다. 머지않아 모든 사람은 몸으로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고, 이 땅에 있는 그분의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마치 영원한 멸망의 벼랑 끝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로 전해야 하는 엄숙한 책임이 놓여 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큰 대쟁투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원칙들, 곧 온 인류의 운명이 달려 있는 그 원칙들은, 귀를 기울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예언자들과 왕들』, 715, 716.

세레 요한과 그리스도의 역사, 그리고 밀러파의 역사는 14만 4천의 메시지와 사역을 보여 준다. 세레 요한과 그리스도 모두 자신들의 메시지를 은혜의 때가 끝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가 베푸는 세레에 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였느냐? 마태복음 3:7.

그리스도는 요한이 시비를 거는 유대인들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던 바로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여 주었다. 예수는 그 멸망을, 그가 미가엘로서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일어설 때 시작되는 "진노"의 상징으로 사용했다.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불신과 반역으로 굳어져 하나님의 보응의 심판을 향해 급히 달려가는 세상의 상징을 보셨다. 타락한 인류의 비통이 그분의 영혼을 짓누르며, 그 지극히 쓰라린 외침을 그분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게 했다. 그분은 인간의 비참과 눈물과 피 속에 새겨진 죄의 기록을 보셨고, 땅 위의 환난당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무한한 긍휼로 마음이 움직이셨으며, 그들의 고통을 모두 덜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셨다. 그러나 그분의 손으로도 인간의 고통의 거센 물결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극히 소수만이 자기들의 유일한 도움의 근원을 찾으려 했기 때문이다. 그분은 그들의 손이 미치는 곳에 구원을 가져다주시기 위해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영혼을 쏟아 내시려 하셨지만, 생명을 얻기 위해 그분께 나아오는 자는 많지 않았다.

"하늘의 존귀하신 분께서 눈물을 흘리신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영혼이 괴로워하시며 고통에 놀려 몸을 굽히신다! 그 광경은 온 하늘을 경탄으로 가득 채웠다. 그 광경은 죄의 지극한 죄악성을 우리에게 드러내며, 심지어 무한하신 능력에게조차 하나님의 법을 범한 결과로부터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과업인지 보여 준다. 예수께서는 마지막 세대를 내다보시며, 예루살렘의 멸망을 초래했던 것과 유사한 기만에 온 세상이 빠져 있는 것을 보셨다. 유대인의 큰 죄는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이었고, 그리스도교 세계의 큰 죄는 하늘과 땅에서 그분의 통치의 기초인 하나님의 법을 거절하는 것이 될 것이었다. 여호와의 법도는 멸시당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질 것이었다. 죄에 매여 사탄의 종이 되고 둘째 사망을 당하도록 정해진 수백만의 사람들은, 그들의 권고의 날에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할 것이었다. 무서운 맹목이여! 기이한 미혹이여!" 위대한 논쟁, 22쪽.

세레 요한과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경고 메시지는 동일한 것이었고, 밀러주의자들의 경고 메시지 또한 은혜의 기간의 종결과 관련된 사건들을 식별하는 것으로, 장차 십사만 사천이 선포할 그 동일한 메시지였다. 세 증인, 곧 세레 요한, 그리스도, 그리고 밀러주의자들은, 십사만 사천의 사역과 메시지가 1989년에 봉인이 풀린 지식의 증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생사를 가르치는 시험 과정임을 증언하고 있다. 그때 봉인 해제된 그 메시지는, 십사만 사천을 구성하는 "제사장들"이 되려는 지혜로운 자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마지막 때의 이상이다. 그 후보자들이 그 이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들은 악인 혹은 어리석은 자로 규정되며 멸망한다. 그들과 그들의 자녀는 지식의 증가라는 그 이상을 거절한 것에 상응하여 버림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가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약탈한 뒤, 넘어져서 그 이상을 확립하는 권세임을 밝힌다. 현대 로마가 교황권인지 아니면 미국인지 하는

문제는, 사람들이 슬기로운 처녀인지 미련한 처녀인지를 드러내는 시험이다. 그 시험은 다니엘서에서 비롯된 예언적 시험이며, 그 후 요한계시록에서 확증되고 완성에 이른다. 현대 로마라는 주제는 단순히 교황권과 미국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14만 4천 명을 위한 최종 시험이다. 그것은 예언적 시험이며, 올바르게 이해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예언적 증언 안에 제시된 최종 시험 과정의 모든 표상을 포괄한다.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의 시대에 있었던 시험 과정은 다니엘서에서 비롯되었고, 밀러주의자들의 시대의 시험 과정도 그러했다. 예언적 시험으로서, 진리가 어떻게 확립되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일은, 현대의 로마가 누구인지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고수하는 것만큼이나 그 시험을 받는 이들에게 필수적이다. 현대의 로마를 올바르게 식별하는 것이든, 올바른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이든, 그 시험의 두 요소 모두가 다니엘서에 담겨 있다. 다니엘서 1장에서 다니엘은 식단으로 시작해, 이어서 겉모습을 확인하는 시험을 거치고,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북방 왕, 곧 마지막 때의 교황 권세를 상징하는 느부갓네살이 시행한 시험을 통과하는 세 단계의 시험 과정을 거쳤다.

이 네 소년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학문과 지혜에 관한 지식과 재능을 주셨고,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는 능력이 있었다. 왕이 그들을 데려오라고 정한 기간이 끝나자, 환관들의 우두머리가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에 데려갔다. 왕이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그들 모두 가운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은 이는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되었다. 왕이 그들에게 묻는 모든 지혜와 총명의 일에 있어서, 그는 그들이 그의 온 나라에 있는 모든 박수와 점성가들보다 열 배나 뛰어남을 발견하였다. 다니엘 1:17-20.

“그 날들의 끝에,”—이는 예언적으로 14만4천이 시험을 받는 마지막 때를 가리킨다—다니엘과 세 신실한 자는 “그의 온 나라에 있던 모든 마술사와 점성술가보다 열 배나 더 뛰어난” 것으로 판명되었고,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는 능력”이 있었다. 다니엘은 14만4천을 대표하는데, 이들은 말세에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그리스도께서 1989년에 “말세와 관련된 다니엘서의 그 부분”의 봉인을 떼심으로써 임한 지식의 증가를 이해하는 자들이다.

다니엘은 단지 다른 사람들보다 꿈과 환상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한 것이 아니라, ‘모든 환상과 꿈에 대한 이해’를 지니고 있었다. 그는 ‘줄 위에 줄’의 방법론을 사용하는 이들을 대표한다. 왜냐하면 그 방법론이 ‘모든 환상과 꿈’을 하나의 일관된 메시지로 결합하기 때문이다. 모든 꿈과 환상을 하나의 예언적 흐름으로 엮어 주는 그 메시지는 ‘유예 기간의 종결과 관련된 사건들’을 식별한다. 그 메시지는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약탈하며 결국 무너지는 권세인 ‘현대 로마’라는 예언적 상징에 의해 확립된다.

그 권위는 올바른 방법론을 적용할 때에만 세워질 수 있다. 성경을 연구한다고 자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절 위에 구절이라는 방법론을 거부하고, 그것을 사용한다고 자처하는 이들 가운데서도 그 방법론을 구성하는 규칙들을 잘못 적용한다. 그 규칙들은 밀러주의자들에 의해 처음으로 공적 기록으로 남겨졌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 백성은 실제로 셋째 천사의 사자들인 자들이 윌리엄 밀러의 예언 해석 규칙들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미리 경고를 받아 왔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일에 종사하는 이들은 밀러 부친이 채택한 동일한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있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84년 11월 25일.

윌리엄 밀러는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의 시작을 대표했으며, 그는 그리스도께서 끝맺으신 그 기별의 시작이었던 세레 요한으로 예표되었다. 화잇 여사는 세레 요한에서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시험의 과정을 세 천사의 기별의 시험 과정과 직접적으로 대응시킨다. 요한이 그 기별을 시작했으며,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이사라 빌립보로 데려가신 십자가 직전에 이르러서야 예수께서는 요한이 시작했던 그 기별의 세부를 덧붙이셨다. 요한이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밝힌 첫(곧 시작의) 진리는,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지목한 것이었다.

이 일은 요단강 건너편 벳아바라에서 일어났으니, 그곳에서 요한이 세레를 베풀고 있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은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 하였는데, 그가 곧 이 사람이다. 이는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28-30.

그때 십자가에서 끝난 3년 반의 시험 기간이 시작되었다. 십자가 직전에 요한이 살해된 뒤, 예수께서는 요한의 바로 그 첫 선언을 설명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 곧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더러는 세레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며, 또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때에 제자들에게 경계하시고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삼 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보이기 시작하시니라. 마태복음 16:13-21.

그리스도 시대에 파니움은 가이사라 빌립보라 불렸으며, 파니움은 다니엘 11장 14절 다음 절에서, 스스로를 높이다가 넘어지는 ‘네 백성의 약탈자들’이 소개되는 곳으로 지목된다. 영감으로 주어져 완전한 세레 요한의 기별은, 밀러의 규칙들 위에 세워진 밀러파의 기별을 대표하는 시작의 기별이었다. 마지막에 주어진 그리스도의 기별은 요한의 기별 위에 세워 그것을 확장하였고, 세 천사의 기별의 마지막 기별을 예표했는데, 그 마지막 기별은 밀러의 규칙들과 ‘줄 위에 줄’이라는 방법론이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밀러의 기별에 더해지는 세부 사항들에 기초해 있다.

환상을 확증하는 상징을 현대 로마의 상징과 연관지어 잘못 이해하는 일은, 십자가의 메시지를 거부했던 그리스도 시대 사람들의 태도와 유사하다. 세레 요한의 메시지를 거부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없었고, 바로 그렇게 했던 유대인들의 역사가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자들을 대표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다. 밀러주의자들은 내가 후에 '현대 로마'라고 명명한 '네 백성의 약탈자들'을 교황권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논의를 다음 글에서 이어가겠습니다.